

자동차 부품 생산조립 작업자에서 발생한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성별	여성	나이	58세	직종	자동차 부품 생산조립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 요

노동자 ○○○은 2000년 10월 23일에 □사업장에 입사한 후 17년 동안 프레스 작업 및 자동조립공정에서 로봇스폿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7년 9월부터 얼굴에 부종 발생하였으며, 2017년 12월 발치 후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치과대학병원을 내원하여 시행한 CT에서 종괴가 발견되었고, 2018년 1월 6일 대학병원에서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C490, 상악골(maxillary bone)에서 발생한 육종, undifferentiated pleomorphic sarcoma, UPS)을 진단받았다. 선행항암 치료(neoadjuvant chemotherapy) 이후 2018년 3월 6일 대학병원에서 종양절제술을 하였으며 재발된 종양으로 2018년 10월 8일 재수술을 하였지만 폐전이가 동반되어있었다. 이후 완화치료를 하였으며, 2019년 9월 10일 사망하였다.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연기와 분진에 노출되어 상병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환경

노동자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17년 동안 프레스, 스폿로봇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 2000~2002년도에는 프레스로 성형, 피어싱, 트리밍 등의 업무를 했으며, 2003~2017년까지 로봇에 제품을 올려놓고 버튼을 조작하면 로봇이 스폿용접을 하였다. 작업 위치는 2층, 3층 로봇스폿용접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 노동자가 직접 스폿용접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양은 많지 않았다고 하였다.

1일 8시간 작업하였고, 주 평균 5일 작업을 하였으나 직원부족관계로 수시 잔업과 토요일 특근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당 추가되는 평균 잔업시간은 18~23시간으로 주당 평균 잔업시간은 15시간, 최고 63시간 근무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유해인자

5 의학적 소견

재해경위서와 보호자 진술에 따르면 노동자는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자궁경부암, 아버지는 방광암의 가족력이 있었다. 2014년 건강검진에서 간기능의 상승(ALT 71 U/L, γ -GTP 115)과 이상지질혈증 소견 보였다. 2009년 오른쪽 유방에 양성종양으로 local 병원에서 맘모톰 절제술(mammotome) 기왕력이 있다. 2014년 3월 4일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papillary carcinoma)으로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및 중앙 구획 림프절 절제(central compartment node dissection, CCND) 수술 기왕력이 있다. 오른쪽 엽(right lobe)의 갑상선암은 직경 1cm 이며 왼쪽 엽(left lobe)은 1cm 이고, 림프절 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병기(stage)는 pT3Ns이며 이후 쉰지로이드®(synthyroid®, levothyroxine sodium)를 복용하였고 방사선치료는 수행하지 않았다.

6 고찰 및 결론

노동자 ○○○은 2018년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았다. 2000년 10월 23일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17년 동안 프레스 작업 및 스폿로봇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과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Iodine-131을 포함한 방사성 요오드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ARC). 노동자는 업무 중 X-선과 감마선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었고, 17년간 용접흠에 노출되었으나 아직 용접흠과 신장 상병과의 연관성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노동자의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